

##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적성·인성면접 [수의과대학]

### 제시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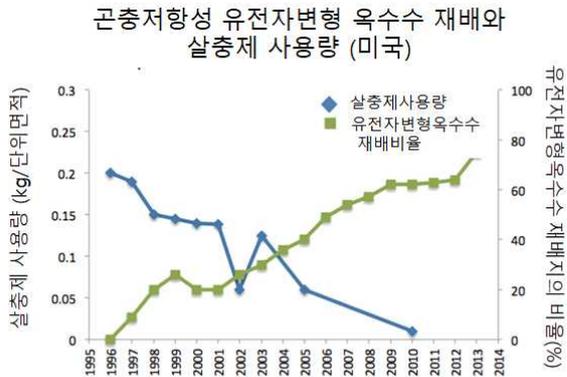
일본의 하세가와 교수 연구진이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개미를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연구진은 가만 있거나, 몸을 활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이른바 ‘백수 개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백수 개미가 많이 포함된 75마리의 군락과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 75마리로 구성된 군락, 과연 어느 집단이 더 오래 존속할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백수 개미가 많았던 군락이 일만 하는 개미만으로 이루어진 군락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빨리 회복했고 오래 존속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한 군락은 어느 순간 피로해지더니 함께 일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놀고 있던 ‘백수 개미’는 위기의 순간 진가를 발휘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지치자 백수 개미가 벌떡 일어나 대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개미가 쉬는 동안 빈자리를 채운 백수 개미. 조직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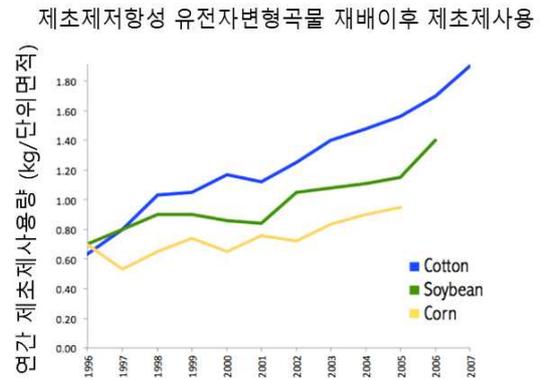
### 제시문 [2]

최근 대법원은 식용견을 묶어 놓고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한 1, 2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향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전기도살을 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를 따지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시문 [3]



Adapted from Malakof D. and Stokstad E. Pesticide Planet. Science Magazine. 16 August 2013.



위의 그래프는 유전자 변형 곡물의 도입이후 살충제와 제초제 사용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 그래프의 옥수수는 곤충에 저항성을 부여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킨 것이며, 오른쪽 그래프의 곡물은 제초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발현시켜 특정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하였다.

## [의과대학]

### 제시문 [1]

(가)

1937년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기존에 알약으로 판매되던 항생제를 유기용매에 녹이고 딸기향을 첨가하여 어린이가 먹기 쉽게 시럽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한 353명 중 105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 후, 동물에 해당 시럽을 투여해 보니 다수의 실험동물이 죽었다.

(나)

1957년 독일의 한 제약회사는 수많은 동물실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입덧 치료제를 개발해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 입덧 치료제를 복용한 산모에게서 팔과 다리가 극히 짧은 기형아들이 1만 명 이상 태어났다.

(다)

1960년대에는 개를 이용한 독성연구가 많았다. 이후에는 개보다는 쥐를 이용한 독성연구가 일반화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실험용 물고기를 이용한 독성연구도 도입되었다.

제시문 [2]



[사진 1]



[사진 2]



[사진 3]

반달리즘(vandalism)은 개인 또는 공공의 구조물이나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에는 건물 벽이나 지하철에 낙서 비슷한 그림이나 글씨가 몰래 남겨진 경우가 꽤 있는데, 이는 그래피티(graffiti)라 불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 불법이며, 그런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많은 벌금을 내야한다.

영국 태생의 뱅크시(Banksy)는 그래피티를 하다 경찰에 쫓기면서 숨었던 쓰레기트럭의 차체에 인쇄된 스텐실(stencil) 그림을 보고서, 이것을 자신의 예술 기법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예: 사진 3). 독특한 느낌과 함께, 때로는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의 그래피티들은 점차 큰 인기와 함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발견되면 지워졌지만, 이제는 그의 그래피티들을 둘러보는 것이 인기 관광코스가 되었다.

제시문 [3]

(가)

1943년 생텍쥐페리(Saint-Exupéry, 1900~1944)는 그의 마지막 소설 『어린왕자』를 발표한다. 이 소설은 아래의 그림과 함께, “어른들은 모자라고 보였지만, 어린왕자에게 그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나)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 소설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고독을 달래주고 이 세상의 불가사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이다”라고 했다.

(다)

생텍쥐페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나누고 할 일을 지사하지 말고,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어라.”

제시문 [4]

한때가 기승을 부리는 일요일 오전 11 시입니다. 부부와 두 자녀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서 주말 내내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1시간 거리에 있는 ○○물고기 축제에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내는 추운 날씨에 나가는 것이 귀찮았지만, 그냥 찬성합니다.

큰아이는 낚시를 싫어하지만 유별나게 굳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가겠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나머지 가족이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함께 집을 나섭니다.

##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학사 · 전문석사 통합과정]

### 제시문 [1]



내전을 피해 탈출도중 터키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아이 (출처 로이터 통신)

### 제시문 [2]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정부가 평범한 정부가 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민주적 정부 또는 다수의 귀족들이 지배하는 정부의 정치적 행동이나, 그 정부가 떠받드는 사람들의 여론, 자질,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 보통 수준을 넘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자청해서 여러 자문단의 도움을 받았다. 훌륭한 재능과 학식을 갖춘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영향을 가까이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현명한 일 또는 고상한 일들이 처음에는 모두 개인들로부터 시작되며 또 그래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첫 단추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꿰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첫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존경과 영광을 받는 길이다. 현명하고 고상한 일에 내면적으로 반응하고 눈을 똑바로 뜬 채 거기에 이끌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힘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종의 ‘영웅 숭배론’을 펼치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천재 같은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갈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할 뿐이다. 그러나 천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방식을 따라 살도록 강요한다면 그들의 자유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재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저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갖지 못한 다수 보통 사람들의 주장이 점점 압도적인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널리 통용되는 의견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뛰어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의 개별성이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 (출처: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859)